

## 고속철도 운영 민간개방 차질없이 추진해야

- 코레일·노조의 민영화 주장은 방만경영을 호도하는 허구 -

공단은 2015년 개통될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는 경쟁을 통해 운영기관이 차질없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경부고속철도는 코레일이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독점 운영하면서 28% 이상 흑자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00억 원의 선로사용료만 내고 있어 공단부채는 17.6조원에 이르고, 하루이자가 23억 원에 달하고 있다.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도 코레일은 건설비는 고사하고 차량구입비도 일체 부담하지 않으면서 고속철도 건설비와 유지보수비를 코레일이 부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기존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조차 민간에 팔아넘기는 것처럼 민영화로 왜곡하는 등 코레일과 철도노조 및 일부 편향된 집단이 진실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도 철도건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코레일은 건설비를 일체 부담 않는데도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민영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코레일 공사회사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3조원이나 부채를 탕감해줬는데도 오히려 매년 적자가 늘어나 '10년 9.7조원의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줄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세금과 공단부채로 건설되는 고속철도 운영을 민간에 개방하여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으로 고속철도 편의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면서 공단 부채로 조달한 50~60%의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 코레일·철도노조의 억지주장에 대한 진실 ■

- 철도공사가 유지보수비(일반철도 70%, 고속철도 100%)를 전액 부담하고, 매년 6,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건설비, 유지보수비, 공공서비스부담(PSO)으로 인한 부채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선로 유지보수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철도공사는 단순히 국가로부터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것임.  
또한, 유지보수비, 건설비 등 부채는 국가와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철도공사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로부터 매년 일정규모(2,800~3,000억원)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받고 있다.
- \* 코레일은 전년도 PSO 집행실적 중 80%상당을 지원받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 서울메트로,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은 PSO 보상을 받지 않음.  
따라서, 철도공사 적자 주요원인은 과도한 인건비 등 방만한 경영과 부실로 인한 것으로, 금일 각종 신문에서 "코레일 매표창구 직원 없앤다"라는 기사는 그 동안 정부 및 공단이 지적한 방만한 경영에 대하여 철도공사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시정한 결과로 본다.
- KTX 경쟁체제 도입을 '민영화'라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하여  
⇒ 금번 경쟁체제 도입은 기존 철도공사의 영업운영 노선을 분할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가 항공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수요창출을 유도하는 항공 산업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 철도 인프라의 매각 또는 민영화라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 \* 1988년 대한항공이 독점하던 항공시장에 아시아나항공, 2005년 저가항공의 진입으로 서비스 차별화 및 소비자 선택권 대폭 확대 등 '경쟁의 효과'에 주목해야 할 것임.
- 영국의 경우 경쟁체제 도입으로 '요금 및 정부보조금이 2배로 뛰어서 실패하였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 요금은 107% 인상된 부분은 특실요금인 감안된 인상분이며, 실제적으로 요금상한제가 적용된 일반실 요금은 약 40% 수준으로 소폭 인상되었으며,  
\* 동 기간의 물가상승율은 약 50% 수준  
또한, 운영회사의 영업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정부의 보조금은 15년 동안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07-'11) 약 37% 수준 감소 추세로서,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다.
- \* 현재 영국철도는 구조개혁 초기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구조개혁의 성과를 시연 해 나가고 있음
- 여객 수송량 : 304억인·km('94년) ⇒ 424억인·km('05년), 40% ↑
- 화물 수송량 : 130억톤·km('94년) ⇒ 210억톤·km('05년), 62% ↑
- 경영 성적 : 265백만파운드 적자('94년) ⇒ 273백만파운드 흑자('05년), 흑자전환
- 철도투자 : 2,342백만파운드('94년) ⇒ 5,136백만파운드('05년), 119% ↑
- 철도사고 : 940건('94년) ⇒ 697건('07년), 26% ↓
- 보조금 : 6,308백만파운드('07년) ⇒ 3,960백만파운드('11년), 37% ↓

## 공단·공사 연간작업조정회의 개최

기술본부는 지난 27일 철도공사와 '12년도 연간작업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공단에서 발생하는 연간 1,660여건의 건설사업과 철도공사 유지보수간 작업일정 등이 상호 결합되지 않도록 노선별 작업시기를 조정하여, 원활한 차단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아울러 양 기관은 전라선 고속화 등 12개 사업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상호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술본부 임평익 기자>



## '사랑나눔 떡국' 봉사활동 시행

- 동절기 난방유 지원 및 시설주변 환경개선 봉사 병행 -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는 지난 20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누는 '사랑나눔 떡국' 행사를 펼쳤다.

본부는 2011년부터 '안나의 집'을 1사1시설 지원대상으로 선정, 연말과 설·추석 명절마다 방문하여 지역에 소외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 재래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원주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원본부 김충섭 기자>



## 강원본부, 사이버해우소로 소통의 장을 만들다!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는 2012년 화두를 '소통'으로 제시하고, 신속한 처리 등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소통의 리더십은 근무시간 중 발생하는 상·하 동료간 업무에 영향을 미쳐 쉽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과 건설현장에서 발생

되는 긴급사안이나 문제점이 빠른 시간에 경영진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음을 착안한 사항이다.  
본부는 직원을 내부 고객으로서 Voice of Customer라 정하고, 건설현장의 감리단장, 건설소장, 현장관계자 등의 의견을 Voice of Fields로 정착한다.  
실시간 의견교환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블로그보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였으며, VOC를 위해 페이스북(facebook)을 지난 1월 4일 개설하고 VOF를 위한 카카오톡(kakaoTalk)을 지난 1월 9일 개설하여 사이버해우소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강원본부에서는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강원본부 주요일정 알리, 직관적인 업무개선편안, 머그컵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건설현장 불만요인 사전해소를 통한 협력사만족도 1위라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강원본부 김학인 기자>

## 충청본부,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충청본부(본부장 김계웅)는 지난 19일 설날을 맞이하여 후원기관인 밀양복지관을 찾아 설 명절에 소외된 재가 장애인과 함께 윷놀이 및 제기차기, 옛치기 등의 민속놀이 행사를 통하여 이웃사랑 나눔의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다.

또한, 인근의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설 선물 전달 및 우리나라 전통 문화 홍보와 향수를 달래주는 등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 운동에 동참하였으며, 목동에 위치한 샘골지역아동센터ta 결혼 아동들에게도 설날 이웃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였다.

앞으로도 본부 KR봉사단은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며, 공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충청본부 인영숙 기자>

계시판

## 금주의 주요뉴스 (1. 16 ~ 1. 28)

- "비대위 반대해도 수서~평택 KTX민영화 4월 공고 추진"(한국경제 1. 16)
- "KTX 민영화" 공개 토론회 추진(대전일보 1. 16)
- 고속철 운영 민간개방 공개토론 추진(세계일보 1. 16)
- 철도가 철도공사의 전유물인가(조선일보 1. 16)
- KTX 민영화(한국일보 1. 16)
- 임기말 혼선, 장관이 중심 잡아(파이낸셜 1. 16)
- KTX 노선 민영화 재고 촉구(대전일보 1. 16)
- 남미 12國 도로·철도 연결(서울경제 1. 16)
- KTX 광역역 진입 갈등확산(무등일보 1. 16)
-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민자유치 '빨간불' (광남일보 1. 16)
- 남원주역세권 종합개발 이달 중 추진(강원일보 1. 16)
- "KTX운영권 경매 총선後로" (매일경제,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전라일보, 광남일보, 충청일보 1. 17)
- 이젠 철도도 경쟁시대다 (국민일보 1. 17)
- 코레일 직원들 교통연구원 고발 (파이낸셜, 한국일보, 충청일보 1. 17)
- 호남고속철 광역역 진입 공방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무등일보 1. 17)
- 원주-강릉 복선전철 5월 첫시 (서울경제신문, 국민일보, 강원일보 1. 17)
- 철도 등 교통시설 승강기 설 연휴 전 일제점검 (서울신문)
- 왕십리-선릉 등 9개 복선전철 연내 개통 (파이낸셜, 한국일보 1. 17)
- 울해 송도-오이도 구간 돌린다 (인천일보, 중부일보 1. 17)
-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사업 4월 완료 (광주일보 1. 17)
- 올 하반기 홍산-송산 복선전철 착공 (금강일보 1. 17)
- 'KTX 민영화' 대리전 비화 (충도일보 1. 17)
- KTX 민영화 지지했다고 고발... 코레일의 오버 (중앙일보 1. 18)
- KTX 민간 개방이란 결국 외주·용역화일 뿐 (조선일보 1. 18)
- 한나라 비대위 "KTX 민영화, 이미 반대로 끝난 얘기" (경향신문 1. 18)
- "같이 인사" 철도공단 임원공백 어찌나 (서울신문 1. 18)
- "먼저 법에 따른 요구인지 판단하라" (서울신문, 세계일보 1. 18)
- 고속철도 민간개방, 특혜 없는 공적 경영을 (국제신문 1. 18)
- "기존역 기능 상실 막아야" (대전일보 1. 18)
- 당-정, KTX 민영화 갈등 심화 (대전일보 1. 18)
- 고속철 민영화 인터넷 여론몰이 반축 (대전일보 1. 18)
- 정선역~아우라지역 철도관광상품 개발 (강원일보 1. 18)
- 철도 독점이 자랑인가...안현실 본설·전문위원(한국경제 1. 19)
- "철도 매표원 6000만원 아니다" 코레일 정면 반박(한국일보 1. 19)
- KTX 민간개방 소고...선택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한겨레신문 1. 19)
- 법원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 사용 중지"(대구신문 1. 19)
- '꿈의 철도' 가시화...설악권 실크로드 열린다(강원도민일보 1. 19)
- 신안산선 차질 없는 조기완공에 주력(시대일보 1. 20)
- 정읍시, KTX 역사·지하차도 백지화 '반발' (전북일보 1. 20)
- 설맞이 나눔활동 철도시설공단 위문품 전달(충청투데이 1. 20)
- 철도경쟁체제도입 찬반 공개토론회(충도일보 1. 20)
- 'KTX 토론회' 평행선만 달렸다(한국일보 1. 21)
- 국토부-코레일 'KTX 경쟁체제 도입' 충돌(서울경제 1. 21)
- 국토부·코레일 'KTX 민영화' 골장토론(세계일보 1. 21)
- "고속철 민영화 반대"...토론회장 난입 시도(조선일보 1. 21)
- 철도공사 찾은 金총리(세계 일보 1. 21)
- 한명숙 대표 철도민영화 반대 노조원 격려(파이낸셜 1. 21)
- 이슈논쟁, KTX 등 철도민영화(한국일보 1. 25)
- KTX민영화, 노조, 일반인 참여 토론회(중앙일보 1. 25)
- KTX민영화 공방, "특정기업 특혜" VS "체질개선 경쟁력UP"(경기일보 1. 25)
- 수도권 전철 독립 기념관 연장을(충청일보 1. 25)
- "고속철 민영화 논쟁 본격화 (충청투데이 1. 25)
- 동대구역, 43년 묵은 때 벗는다 (대구신문 1. 25)
- 철도 독점체제, 이젠 끝내야(문화일보 1. 25)
- 철도사업 경쟁체제가 답이다(한국경제 1. 26)
- 전라선 KTX, 100일만에 승객 20만 돌파(서울신문 1. 26)
- 올 연말 진주서 KTX타고 서울로(경남일보 1. 26)
- 남부내륙철도 연내 착공을(경남일보 1. 26)
- "수서발 경부·호남KTX 민영화 지지(영남일보 1. 26)
- KTX 경쟁체제 도입, 신중한 접근 필요(경남매일 1. 26)
- "호남고속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을"(전북일보 1. 26)
- "KTX경쟁도입 방안은 민영화와 거리 멀다"(전라일보 1. 26)
- 국토의 새동맥 호남고속철(충청투데이 1. 26)
- 청주-오금지역 사이 북정주역 신설 추진(대전일보 1. 26)
- 수도권전철 연장 요청(충청투데이 1. 26)
- 코레일 고속철 독점 안될 말(한국일보 1. 27)
- 경전선 마산~진주 연말 KTX 개통(경향신문 1. 27)
- KTX만 경쟁시켜선 안 되는 이유(국민일보 1. 27)
- 황 "운영권 민간위탁...법적 문제없어", 反 "헌법반 근거 없다...법 개정이 먼저" (경기일보 1. 27)
- 부산~울산 복선전철의 절반 축소 반발(경상일보 1. 27)
- 'KTX 수도권 빨대호파' 대비 방안 시급(경남일보 1. 27)
- 철도부지에 막혀 쇠퇴일로 원도심, 부활 길 활짝 열렸다(국제신문 1. 27)
- 오송~연기 철도시험선로 신설 갈등(중부매일 1. 27)
- KTX 민영화 방침, 철회되어야 하나(중앙일보 1. 28)
- 제2민항 성공에서 배울 것(조선일보 1. 28)

## 경조사

- 시설사업본부 해외철도사업처 정재욱과장 부친상
- 기술본부 수송계획처 김형용차장 모친상

- 발인 : 2012년 1월 26일

- 발인 : 2012년 1월 26일